

故 김영애 생전 마지막 인터뷰

“원도 한도 없는 삶... 죽음 앞 아까운 건 연기 뿐”

“죽음을 앞두고 아까운 건 없어요. 그런데 연기는 좀 아깝긴 해요. 이만한 배우 키워내려면 40~50년은 걸리는 거니까. 그것 말고는 미련도, 아까운 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은 배우의 목소리는 편안했고, 차분했다. 지난 9일 별세한 배우 김영애가 눈 감기 전 생애 마지막 인터뷰를 연합뉴스와 진행했다. 인터뷰는 작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김영애는 “이 인터뷰는 내가 죽거든 내보내 달라”고 당부했다.

1951년 부산에서 태어난 김영애는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1년 MBC 공채 탤런트 3기로 연기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공채로 뽑힌 지 2년만인 1973년 일일극 ‘민비’의 주인공으로 발탁됐다. 그는 자신의 ‘인생작’으로 드라마 ‘형제의 강’ ‘파도’ ‘황진이’를 꼽았다.

“시대극 ‘형제의 강’이 1996년 작품인데, 내가 도회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미스 캐스팅이란 소리가 나왔어요. 나한테는 연기의 폭을 넓힌 작품입니다. 어머니상을 구축한 작품이구요. 1999년 ‘파도’는 멜로가 있는 엄마의 이야기라 재미있었고요.”

그는 특히 2006년 방송된 24부작 ‘황진이’를 자랑스러워했다.

“요즘 ‘황진이’의 윤선주 작가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병문안을 와서 날 즐겁게 해주고 가요. 윤 작가가 이야기하면 이번엔 ‘황진이’를 다시 봤는데 주옥같은 대사와 예쁜 그림, 뛰어난 연출 솜씨가 새록새록 생각났어요. 처음 대본 받았을 때 내가 이걸 어찌해낼까, 어찌 제대로 해낼까 무서워했던 기억이 나요. 임백무를 연기할 때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제대로 연기를 못해낼까 봐. 난 항상 작가들이 힘들게 쓴 대본을 제대로 연기로 표현해내지 못할 때 미안하고 송구해요. 배우는 이미 한번 만들어진 것에 옷을 입히는 역할이예요. 그런데 작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배우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김영애는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드라마를 찍으면서 건강이 악화해 병원에 입원했고, 결국 마지막 촬영까지 4개월 병원에서 외출증을 끊어가며 녹화 현장을 찾는 투혼을 발휘했다.

“월계수양복점 신사들’ 안 했으면 난 벌써 나를 놓았어요. 연기하려고 억지로 먹고 버텼어요. 다만 내 상태가 나빠진 게 이미 촬영 시작하고 벌어진 일이라 너무 미안해요. 폐 안 끼치고 드라마를 무사히 마치기만을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폐를 끼친 것에 그저 용서를 바랄 뿐입니다. 병원에서 분명히 몇년의 시간이 더 있다고 했는데...”

그는 “그래도 드라마 할 때만 없던 정신이 차려진다”고

촬영 덕분에 나를 놓지 않고 버려내
“세상의 감사함 갚지 못하고 가 미안”
황토팩 논란 아픔에도 미움 내려놔



말했다. “누구는 다 접고 사골 가서 공기 좋은 데 살라고 해요. 그런데 난 아니예요. 배우가 아닌 나를 생각할 수 없어요. 연기하지 않는 김영애라... 처음 며칠은 좋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 이후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연기 없이 무슨 의미로 살아요? 몸이 아픈데 대본이 외워지느냐고 묻는데, 연기할 때 대사 외우는 건 문제 없어요. 분량이 많지는 않잖아요.”

원래도 ‘독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아온 그이지만, 암 투병을 하게 되면서 그는 이를 악무는 순간이 더 많아졌다. 보통 사람 같으면 병의 무게에 무너지기 십상일 때 그는 정반대로 연기투혼을 더 불태웠다.

“작년 영화 ‘판도라’를 보고 나서 ‘해를 품은 달’ 김도훈

PD가 장문의 칭찬 편지 보냈어요. 그 맛에 연기하는 거예요.(웃음) 난 내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순간, 연기할 때, 그게 좋아서 연기 하는 거예요.”

그는 최근작으로 드라마 ‘닥터스’와 영화 ‘애자’ ‘변호인’ ‘판도라’ ‘형제입니다’ 등에서의 연기가 재미있고 보람됐다고 꼽았다.

“정말 감사할 게 많아요. 이 세상에 감사했다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받았어요. 고맙고 감사한 일뿐인데, 이 감사함을 갚지 못하고 가는 게 미안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한 작품도 많다. 나 정말 일 많이 했다”는 김영애는 “먹고 살기 위해 연기하고 싶지 않아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연기만 하기 위해 사업에 뛰어들었다. “저런 연기 왜 하는냐는 소리를 들을 때 정말 부끄러웠다”는 고백이 뒤따랐다. 그가 2001년 시작한 황토 화장품 사업은 누적 매출 1500억 원을 돌파하는 등 번창 일로였다. 이 시기 김영애는 연기를 중단했고, 주변에 크게 배앓았다.

“어느 해인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어요. 사업해서 번 돈 중 4억을 기부해서였죠.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었던 것도 배우로서 얼굴이 알려진 덕이잖아요. 그러나 그냥 말 안 하고 가는 것보다는 세상에 인사하고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2007년 한 소비자고발프로그램에서 황토팩의 중금속 논란을 제기하면서 그의 사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공식 발표를 통해 참모원 제품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이 일로 마음고생을 크게 한 그는 결국 사업에서 손을 뗐다. 김영애는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편안해진 게, 미운 사람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 따지면 나도 살면서 정말 부끄러운 일 많이 했어요. 누구를 뭐라고 하거나 미워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은 어떤 미운 사람도 가슴에 남아 있지 않아요. 누굴 원망하는 건 결국 나를 괴롭히는 건데 그 시기를 그냥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그는 슬하에 33세 외동아들을 뒀다. 아들은 프랑스와 미국의 최고 요리 학교를 졸업한 셰프다. “내가 2~3년 더 옆에 있어 주면 좋겠지만, 잘 해주리라 믿어서 별걱정이 없어요. 좋은 교육을 해줬는데 알아서 잘 살 거라 믿어요.”

두 번의 결혼과 두 번의 이혼을 한 김영애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도 했다.

“난 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다 했어요. 사랑도 원 없었습니다.”

다시 듣는
‘마왕’
신해철



SBS라디오 ‘고스트스테이션’ 무료 서비스

이제는 전설이 된 ‘마왕’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는 채널이 열렸다.

SBS라디오는 ‘신해철의 고스트스테이션’ 다시듣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SBS라디오와 벅스는 SBS홈페이지와 벅스 홈페이지, 팟캐스트 앱 ‘팟티’(PODITY)를 통해 ‘신해철의 고스트스테이션’ 다시듣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이 폐지된 지 5년 만이다.

‘고스트스테이션’은 신해철이 2001년 4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진행한 SBS라디오의 대표 정수 프로그램이다. DJ 신해철의 거침없는 입담이 호응을 얻으면서 신해철에게 ‘마왕’이라는 별칭이 생기기도 했다.

신해철이 2014년 세상을 떠난 후 ‘고스트스테이션’에 대한 그리움을 호소하는 팬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SBS는 매주 7번의 방송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SBS와 벅스는 ‘고스트스테이션’을 시작으로, 종영된 과거 인기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팬텀싱어’ 우승팀 광주 찾아온다

6월3일 DJ센터 등 14개 도시 투어 콘서트

JTBC의 오디션 프로그램 ‘팬텀싱어’의 우승팀인 ‘포르테 디 콰트로’가 광주를 찾아온다.

‘포르테 디 콰트로’는 오는 5월 7일 수원 경기문화회관전당 무대를 시작으로 전국 투어 공연을 연다. 6월3일 오후 6시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열리는 광주 공연을 비롯해 전주·창주·고양·울산·서울·창원·성남·대전·제주·원주·대구·부산까지 총 14개 도시에서 16회에 걸쳐 투어를 진행한다.

‘포르테 디 콰트로’는 뮤지컬 배우 고훈정, 테너 김현수, 베이스 손태진, 연극인 이버리로 구성된 팀으로 ‘4명의 힘’, ‘사중창의 파워’를 뽐낸다.

이들은 작년 11월 첫 방송된 ‘팬텀싱어’의 결선 1, 2차 무대에서 현장투표와 시청자투표를 통해 두 차례 모두 우승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Time, Program Name, and Description.

EBS 1

Table with 4 columns: Time, Program Name, Description, and Time, Program Name, Description.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11일(음 3월 15일 戊辰)

Table with 2 columns: Day (子, 丑, 寅, 卯, 辰, 巳) and Fortune/Advice text.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